아이디어

1. 방역 알림이
2. 가게들이 매일 새로 방역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서 올리고
3. 손님들은 그걸 확인 후 믿음을 가지고 그 가게를 갈 수 있음?
4. +
   * 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 좀더 믿음을 줄 수 있음
   * 문제점
     + 코로나 끝나면 쓸모없는 어플
     + 사진이 똑같은지 매일 다른 것인지 확인 필요, 몇시에 올렸는지 사진정보? 받아오는것도 필요할듯
     + 종현왈 결국 코로나가 무서운 점은 동시간대나 전에 있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역하는건 상관이 없다.
5. 방문자 QR코드 -> 택시QR코드
6. 지금도 작성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느 가게를 방문했을 때
7. 핸드폰 번호 기본 인적사항을 적는게 매우 귀찮기도 하고 안적는 사람이 많은데
8. 이거를 간단하게 QR코드 or 바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자마자? 계산하면서? 등록하면
9. 따로 안해도 되게 (택시에 하면 좋을듯? 뒷자리나 좌석 사이에 부착해두고 등록하면 택시 기사님한테 알람 가고, 출발하고, 기록 남고)
10. + 택시 하려면 새벽에 취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야함
11. + 택시에 하면 나중에 카드 분실이나 물건 잃어버렸을때 바로바로 해결 가능할듯?
12. + 아니면 택시 외부에 추가로 부착해서 취객이나 여자친구 택시 혼자 태워 보낼때 다른 사람이 찍어서 택시 정보 따로 안적어도 되게 할수도 있을듯
13. 아니면 아예 카톡이랑 연동한다 생각하고 메세지로 보내면 가격이 많이 드니까 택시에 대한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줘도 될듯? 그럼 어플은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야함

문제점

* + 1. ~~이것도 코로나 끝나면 딱히 쓸모 없을듯~~
    2. QR코드 찍는거는 전과같이 일일이 확인해야함(택시에서는 상관 X)

1. 내꺼 STM 아이디어

* 노트북으로 얼굴, 자세 인식기술을 통한 거북목 인식
* AI 공부랑 핸드폰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할듯
* ICT가 사물과 인간과의 연결도 포함이여서 주제에 벗어나진 않지만 코로나와 연관 시키려면 언택트 시대가 왔다 어쩌구 저쩌구 설명이 필요할듯

1. 재난문자 도움? 어플 (안전 디딤돌이라는 종합 어플이 있는데 코로나 전용으로 만들기?)
2. 사실 요즘은 재난문자와도 잘 안보고 그냥 대충 보고 넘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지역 위주로 확인하고 싶을때 사용
3. 근처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코로나 전용 어플 만들기
5.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6. 여기 사이트 실시간 크롤링? 5분마다 크롤링? 1분마다? 하기 힘들수도
   * 문제점
     1. 이미 안전 디딤돌 종합어플이 있어서 나중에 쓸모없을듯